

보도시점 : 배포 즉시 보도 가능 / 배포 : 2024. 7. 18.(목)

체코 프라하 오가는 하늘길 26년 만에 넓어진다

- 팀코리아로서 항공회담 조기 개최... 운수권 주7회로 증대(현행 주4회) 등 합의

-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7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프라하에서 한-체코 항공회담*을 개최하여 양국 간 운수권을 주7회(현행 주4회)로 증대하는 데에 합의하였다.

* (수석대표) 한국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 김영국 - 체코 교통부 민간항공국장 Zdeněk Jelínek

- 체코에는 자동차·반도체 등 다양한 부문에서 100여개의 우리기업이 진출해있다. 프라하는 우리 국민들의 인기 방문지로, 항공부문은 '04년 직항을 개설하여 양국 간 이러한 우호 협력증진의 기반이 되어 왔다.

- 금번에 팀코리아로서 산업협력 패키지의 일환으로 체코 항공당국과 협의, 항공회담을 7월 17일부터 양일간 조기 개최하여 한국수력원자력(이하 한수원)의 체코 신규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적극 지원하였다.

- 양국 간 운수권은 '98년 이래로 여객·화물 공용 주4회로 유지되어 왔으며, 이번 항공회담을 통해 양국 간 운수권을 각각 주7회(현행 주4회)로 증대하는 데에 합의하여, 26년만에 양국 간 정기편의 대폭 증편이 가능해져 기술·경제, 문화 등 다방면에서의 협력 강화의 계기를 마련하였다.

- 아울러, 금번 항공회담을 통해 양국 항공사 간 편명공유(코드셰어) 조항도 협정에 반영하여 프라하를 경유한 유럽 내 제3국 이동시에도 국적사를 통해 일괄발권, 마일리지 적립도 가능해져 소비자 편의도 증진된다.

* 인천-프라하 노선은 과거 우리측(대한항공)과 체코측 항공사(체코항공)가 합산 주6~8회를 운항, 현재는 체코측 항공사의 단항으로 우리측 항공사만 주4회만 운항

-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“이번 운수권 증대를 계기로 양국 항공부문의 협력 뿐만 아니라 원전협력을 매개로 한 제반 경제협력 및 문화·인적 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”면서,
- “앞으로도 양국 간 SOC 기반시설 등에서 유망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한수원과 발주사 간 계약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팀코리아로서 총력을 다하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항공정책관 국제항공과	책임자	과 장	심지영 (044-201-4207)
		담당자	사무관	성경림 (044-201-4215)
			주무관	강인혜 (044-201-4220)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

1. 협정개요

- (체결일자) '90.9.19(프라하) 가서명, '90.10.26 서명·발효
 - 일부 개정 '98.8.7. 가서명, '05.2.14. 교환각서로 발효
 - 전면 개정 : '20.11.24. 서명, '23.3.1.발효
- (지정항공사) 다수제
 - 우리측: 대한항공 / 체코측: 체코항공

○ (노선구조)

구 분	출발지점	중간지점	목적지점	이원지점
한국측	한국 내 제지점	제지점	체코 내 제지점	제지점
체코측	체코 내 제지점	제지점	한국 내 제지점	제지점

- (운수권) 여객/화물 공용 주4회^{'98.8~'24.7} → 주7회^{'24.7~}

2. 운항현황('24년 하계시즌)

- (한국측) 여객 주4회
 - 대한항공, 인천-프라하, 여객 주4회, B789(269석)
- (체코측) 미운항*

* 과거 체코항공은 7년여 간('13.6월~'20.2월) 운항하였으나, 코로나로 단항